

## 경주의 새로운 도시 발전을 위하여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수/환경정책

2005년 11월 2일 주민 투표로 경주 월성 원전 근처에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경주시 안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갈등이 보인다.

2006년 5월 지방 선거에서 소리없는 전쟁이 치루어질 것이다. 경주 안의 심각한 지역 경쟁이다.

자기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 가려는 'In My Backyard'의 전쟁이다. 'Not in My Backyard' 만큼 'In My Backyard'도 문제를 갖고 있다.

1. 3000억원 포상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2. 양성자가속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3. 한수원 본부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4. 년 반입비 80억원을 경주가 쓴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위의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다.

모두 답을 찾으려 하지만 명쾌한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2번, 3번 해답은 공간 문제, 1번, 4번 해답은

프로그램 문제다.

### 경주를 '역사 도시'로

한수원 본부를 폐기물 처분장 근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월성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것이다. 현경주시장이 그들에게 구도로 약속한 사항이다.

수중왕릉이 있고, 감은사 탑이 서 있는 역사 보전 지구, 국립 공원에 한수원이 들어설 공간이 있는지 궁금하다. 한수원이 들어설 공간, 직원들이 살 주택, 직원 자녀들이 다닐 학교, 도로를 낼 공간이 있는지 궁금하다.

경주시는 건천을 새로운 경주의 발전 지대로 장기 계획에 정해놓고 있다. KTX 역사가 들어서고, 3만~5만 인구가 들어와 살 신도시의 꿈이 한수원 본부와 양성자가속기 연구소와 관련 산업을 흡수할만 하다.

건천으로 신도시를 집중시킬 것인가, 한수원과 과학 시설을 분산 배치시킬 것인가에 대한 도시 발전 철학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경주 중심가에 한수원이 들어서고, 양성자가속기가 포항과의 경계선에 가까운 안강 지역에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

민들은 그 나름 대로 지역 이기주의자들이다.

작은 지역이기주의자들이다.

안강 지역 사람들은 그들이 소외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포항공대가 양성자가속기 운영에 가장 큰 참여자이기 때문에 안강이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주 전체가 소외되어 왔다. 보문 관광단지도 벚꽃이 피는 4월 한달 반짝하고 만다. 보문단지 관계자나 택시 기사도 모두들 제주도로, 금강산으로 간다고 아우성 한다.

그렇다. 경주는 황남빵이나 경주빵을 팔아서 사는 가난한 도시이다. 경주시는 가난한 지방정부다. 재정 자립도 35%의 가난한 도시다. 태권도공원 유치마저 실패한 그런 소외된 도시다.

그래서 경주를 새로운 과학/에너지 도시로 키워야 한다. 경주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경주를 안에서 보면 대구쪽, 포항쪽, 울산쪽으로 난 제법 큰 땅이다.

한수원과 양성자가속기가 경주 어디로 가는냐는 문제는 경주 밖의 사람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아니다. 천년 고도를 훼손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경주 안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밖의 사람인 필자는 건천으로 간다면 거기서 나오는 세입을 월성과 안강으로 가져가도록 하면 된다. 건천의 부동산세율을 높이고 소득세, 판매세를 월성과 안강으로 가져가면 된다.

3000억원 포상금 사용처를 정하는 일은 프로그램 선별 작업이다.

3000억원이 큰 돈이 아니라는 경주시의 한

관리를 만났다. 그 돈은 경주 년 예산의 70%에 해당되는 큰 돈이다. 그러나 황룡사 복원숙원 사업인데 3000억원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돈을 그렇다고 경주시의 일반 세입으로 편입해서 쓴다면 그 막대한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제발 그 돈이 경주라는 역사 도시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필자는 그 돈이 모자라면 문화공보부의 예산, 국민들의 모금 운동으로 황룡사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경주 역사 도시를 위해 그 돈이 묶여있는 사유지 매입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경주시의 한 관리는 말한다. 어느 선택이 현명한가?

당나라 도시, 수조(소주), 항조우(항주)에 가면 당대의 절들이 최대의 관광지가 되어 왔다. 황룡사는 복원되어야 하고, 그 돈은 복원의 중장전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신라의 영광을 재현하는 길이다.

경주의 이웃인 울산시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가장 가까운 도시로서 경주가 갖는 혜택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라와 있는 갈등 사례다.

그러나 경주도 그 혜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나누어 가질 것이 있으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울산은 신흥 공업 도시, 경주와 얼마나 나눌 것이 있는지 도시 재정을 비교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의 경우를 벤치마킹하길

미국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75%를 처분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주 반웰(Barnwell)군은 반입비의 일차적 수혜



자이지만 인접 두 개의 군(Bamberg 와 Allendale)도 120만 달러의 경제 개발 기금 공동 수혜자들이다.

이 돈은 반입비에서 나올 수도 있고 특별 예산에서 나올 수 있다. 반입비는 폐기물 처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환경 영향을 매 시간 점검하고, 30년, 40년뒤 폐쇄될 때 필요한 경비와 폐쇄 후 적어도 100년 지켜보는 안전 파수꾼 비용을 위한 것이다. 흥청망청 쓸 돈이 아니다.

폐기물 처분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는 것이 경주를 위한 길이요, 울산을 위한 길이요, 한국을 위한 길이다.

반월 옆 아이큰(Aiken) 군에 사반나강 원자력산업 지대가 있는데 조지아주와 함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1950년대 냉전 시대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냈던 민간 회사들이 들어있다. 모 회사는 연방 정부(중양 정부) 에너지부가 된다.

Savannah River Regional Development Initiative가 경주와 울산 협동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아이큰, 반월, 알렌데일과 조지아주의 리치몬드(아우그스트)와 콜럼비아를 아우르는 지역 경제 개발 계획이 경주/울산 협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에서는 반입비가 유일한 혜택인데, 경주는 신타클로스의 선물을 가득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나누는 일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